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뉴저지에서 자라며 저는 어떤 특정한 꽃이 피면 부활절을 연상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꽃의 개화를 새로운 삶과 부활에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이 시작될 무렵이면 이미 피어나는 내쉬빌의 유다 나무 꽃들을 보며 내심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최근에 부활과 봄꽃의 개화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이 부활에 대한 급진적 교리를 약화시킨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거나, 동면을 취하고 계셨다거나, 또는 어떤 주기적 패턴 속에 계셨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자연의 주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의 만남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이해하고, 예견하며 통제하기 위해 자연의 질서를 공부하는 우리에게 이와같은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서술은 참으로 경이로운 것입니다. 이같은 철저한 개입은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서의 역사 전반에 걸쳐 하나님은 피조물에 관여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첫 번째 사역에서 부터, 노아와 세우신 언약과 광야에서 헤매이는 백성들을 위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기 까지, 그리고 기근과 수확, 선지자들의 탄식과 비난을 통해 하나님은 피조물에 관여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욱 강력한 창조의 확신은 예수님의 부활일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 자신들의 죽음 또는 예수님이 사람들과 국가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약속된 메시아라는 소망의 소멸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에게 확고한 입증을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화해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모든 피조물의 화해와 구원을 포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적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새로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인간의 삶을 지속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피조물이 번창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수면의 상승, 중국 도시들의 위험한 오존 수치, 비옥했던 아프리카의 사막화, 미국의 가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경고들입니다. 인간들에게 (특히 가장 취약한 인간들에게) 닥치게 될 처참한 결과 때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이러한 생태학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부활절에 찰스 웨슬리의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길과 진리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 사역하는 우리를 견고하게 묶어주길 바랍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총무 헤리엇 올슨